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유럽 재정위기 악화 원인: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 확대

- 최근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더불어 이탈리아, 벨기에의 신용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되는 등 유럽 주변부국가의 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가 인접국가로 확산되고 있음.
  - Fitch는 5월 20일 그리스의 재정적·구조적 개혁이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`BB+'에서 `B+'로 3단계 하향 조정함.
  - S&P는 5월 21일 이탈리아의 성장전망 취약과 정치적 교착상태로 인한 재정악화 초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탈리아 신용등급 전망을 '부정적'으로 하향 조정함.
  - Fitch는 5월 23일 정치적 문제로 인해 벨기에 신용등급 전망을 '안정적'에서 '부정적'으로 하향 조정함.
- 그리스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재정불안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.
 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, 실업률, 경상수지, 재정수지, 정부부채 등에서 독일 등 핵심국과 그리스, 포르투갈 등 주변국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됨.

	경제성장률		실업률		경상수지		재정적자		정부부채	
	'99~'07	2010	'99~'07	2010	'99~'07	2010	'99~'07	2010	'99~'07	2010
핵심국	2.1%	2.3%	7.3%	6.6%	2.9%	3.5%	1.7%	5.2%	58.8%	75.9%
주변국	4.1%	-0.8%	7.8%	11.6%	-6.1%	-6.4%	1.7%	15.3%	59.9%	98.0%

주 : 1) 핵심국은 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의 평균치, 주변국은 스페인, 그리스, 포르투갈, 아일랜드의 평균치  
2) 경상수지, 재정적자, 정부부채는 GDP 대비 기간 중 연평균

-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동안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이유로 단일환율 적용에 따른 대외경쟁력 격차, 국가별 재정정책 수행에 따른 거시정책 부조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함.
  - 물가수준과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차이가 큰 국가에 대해 단일환율 적용 시 실질통화가치가 저평가(핵심국) 또는 고평가(주변국)됨에 따라 대외경쟁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.
  - 또한 개별국가의 재정정책 재량권이 주변국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초래하게 되었고, 이는 결국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짐. (Financial Times 5/24, EuroStat)